

이통3사 “아미를 잡아라” ‘갤S20+BTS 에디션’ 예판 시작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동안 공식 온라인몰과 전국 매장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S20+ BTS 에디션에 대한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식 출시일은 오는 7월 9일이며, 가격은 139만7000원이다.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은 방탄소년단의 상징색인 무광 퍼플 색상이 적용됐다. 무광의 헤이즈 공법이 적용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감으로 보인다.

후면 카메라에는 퍼플 하트, 하단에는 방탄소년단의 밴드 로고가 더해졌다. 잠금화면과 홈화면, AOD, 아이콘 등에 적용되는 전용 테마와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가 탑재돼 있다.

이번 BTS 에디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갤럭시S2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 등 특정 수요층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스마트폰 판매 라인업도 늘릴 수 있다.

실제 지난 19일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20+ BTS 에디션과 ‘갤럭시버즈+BTS 에디션’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를 온라인에서 한정 판매한 바 있다. 패키지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약 1시간만에 완판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도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LG유플러스는 1일부터 U+샵에서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을 사전예약 중 ‘입고알림’을 신청한



방탄소년단이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SKT BTS 브로마이드 등 증정
KT ‘BT21 그림톡’ 포함 퍼플템
LGU+ BT21 단독 사은품 혜택

30명을 추천해 22만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BTS 에디션’을 선물한다.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U+샵 홈페이지에서 입고알림에 등록된 고객 중 30명은 추천을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당첨 여부는 오는 8월 17일에 확인할 수 있다.

또 U+샵에서는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을 사전 예약하면 갤럭시버즈+BTS 에디션을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이 밖에 U+샵에서 사전예약하면 ▲BT21 LED 무드등 ▲BT21 고속무선충전 마우스패드 ▲BT21 버즈 케이스 ▲BT21 블루투스 미니스피커 ▲BT21 스마트램프 등 단독 사은품 5종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KT도 갤럭시 S20+ BTS 에디션 출

시를 기념해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단독사전예약 혜택을 준비했다. 1일부터 KT샵에서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을 사전예약하면 ‘퍼플템 사은품’을 선물한다. 퍼플템 사은품은 ‘BT21 그림톡’이 기본으로 구성돼 있으며 ▲BT21 배조배터리&셀카봉 ▲키썸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아라리 3종 패키지 중 하나를 추가로 선택해 총 두 가지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KT샵에서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을 사전예약한 고객에게 사전예약 개봉 시작일인 7월 8일까지 단말기 배송을 약속하는 ‘배송책임제’도 시행한다. 만일 약속일까지 배송이 완료되지 않으면 ‘더 바디샵 화이트 마스크 샤워젤 400ml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SK텔레콤도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을 사전예약하면 무선충전패드 세트, 케이스 세트, BTS 브로마이드를 증정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美 마이크론, 예상 갯 호실적 반도체업계 ‘깜짝 실적’ 기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점쳐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2분기 ‘대박’ 가능성을 확인했다. 미국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다. 3분기에도 꾸준한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적 하락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6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론은 29일(현지시간) 미국 회계 기준 3분기(3~5월) 실적을 발표했다.

결과는 ‘서프라이즈’였다. 매출이 54억달러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43억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영업이익이 9억8100만달러로 전년 동기(10억1000만달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9억4100만달러로 전년 동기(8억4000만달러)보다 20% 가까이 상승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에 이은 2위 업체다. D램과 낸드플래시를 주력 사업으로 한다.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계 실적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거둔 이유는 단연 서버업체 증설이 꼽힌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서버 업체가 앞다퉈 설비를 증설하면서 메모리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는 것.

하반기 인기 콘솔 2종이 출시를 앞둔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하반기 시장에 판매되는데, 사양을 대폭 높이면서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을 대거 사들였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5G 증설 효과와 함께, 스마트폰 등 세트 수요도 예상보다 견조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마이크론보다 더 좋은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미중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국산 반도체를 대거 사들였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코로나19 여파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생산 피해를 겪지 않았던 점도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2분기 매출액 증가 수준을 20%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이 일찌감치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난데다가, 미중무역



미국 마이크론.

/마이크론

분쟁 등으로 주문량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가 오랜만에 큰폭으로 상승했다.

문제는 하반기다. 상반기 서버 업체가 재고를 대대적으로 비축한 탓에 하반기부터는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일단 마이크론은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스마트폰과 전자제품 등 세트에서 부진할 수 있지만, 서버 수요는 여전히 강해서 공급 부족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이유다.

마이크론 빛그로스가 10% 이상 성장했다는 추측도 이를 뒷받침한다. 빛그로스는 메모리 용량을 기준으로한 생산량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 실적 향상이 단순히 메모리 가격 상승이 아닌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 실물가는 다시 3달래대 중반 가까이 올라섰다. 최근 2달래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를 되찾았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2분기 서버업체 주문량이 전분기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도, 3분기부터는 다시 주문량을 줄일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다. 증권가에서도 3분기와 4분기 반도체 거래 가격이 5%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서버 업체 수요 감소는 현실화됐다고 알려졌다. 재고량도 높아졌지만,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구매를 관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재용 기자 juk@

美 ‘코로나 화장지 대란’에 韓 비데 인기

코웨이, 수출물량 2배 급증
해외 주문 90%가 미국
콜러노비타도 판매 증가세



노비타 비데 BH90-N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때 ‘화장지 대란’까지 겪었던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전자비데 판매가 실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산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비데 회사들이 미국 수출 증가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관련회사들에 따르면 코웨이는 상반기인 6월말까지 미국으로 보낸 비데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늘어났다.

콜러노비타도 미국 수출 물량이 1년 전에 비해 55% 정도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4분기 코웨이의 비데 수출 제품 생산량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약 170%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국향 제품이 전체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들이 비데를 많이 찾는 등 해외 주문이 크게 늘어나며 포장 라인도 기존보다 2배로

늘려 수출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수출 대표 제품 중 하나인 ‘비데메가150’은 비데의 핵심 기능인 세정과 위생에 충실한 실속형 제품으로 꼽힌다. 노즐 자동 세척 기능과 스테인리스 노즐을 탑재해 더욱 위생적으로 만들고, 코웨이의 혁신적인 세정기술인 i-wave 슈류 시스템을 적용해 차별성도 높였다.

특히, ‘비데메가150’은 미주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야간 변화 라이팅 기능’과 ‘어린이 맞춤 모드’, ‘조작부 시각장애이용 점자 표기’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현지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코웨이는 2006년 5월 당시 미국 법인을 설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바 있다.

콜러노비타도 모기업인 콜러(KOHLER)의 지난 3월 미국에서의 비데 주문량이 전년 3월보다 무려 8배 늘어나는 등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콜러노비타는 현재 미국에 ‘BN330-N0’ 모델을 비롯해 5종의 비데를 수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컴팩트한 디자인에 원터치 착탈 버튼, 소프트 개폐, 스테인리스 노즐과 노즐 자동 세척 등 노비타 비데의 장점을 두루 갖췄다. ‘BH90-N0’의 경우 LED 라이트 기능을 포함해 야간에 불을 켜지 않아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콜러노비타는 84년 당시 설립된 한 일가전이 모태로 이후 노비타로 사명을 변경한 후 2011년부터 글로벌 브랜드 풀러를 만나 지금의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콜러노비타는 지난 2003년 전자식 비데의 중추국이라 불리는 일본에 비데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대만 등의 국가에 비데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비데 업계 최초로 ‘3000만불 수출’을 돌파하며 무역의 날에 수출의 탑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는 일본 누적 수출 물량 250만 대를 달성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IBM, 스파누고 인수... 클라우드 보안 강화

보안관제센터 솔루션 보급 가속

IBM이 미국에 거점을 둔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관리 솔루션 기업 스파누고를 인수한다. IBM은 규제가 강한 산업군의 고객이 요구하는 높은 보안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스파누고 소프트웨어를 IBM 퍼블릭 클라우드에 통합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IBM은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보안, 레질리언시 관련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금융 서비스용 퍼블릭 클라우드를 개발했다.

이 클라우드가 공식 출시되면 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대상 워크로드에 대해 사전예방 및 사후보정 차원의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아키텍처를 지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최고 수준의 암호화 인증을 통해 선제적이고 자동화된 보안도 제공하게 된다.

스파누고 소프트웨어의 통합으로 보안관제센터 솔루션 보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IBM 고객은 이를 통해 준수해야 할 규제 개요를 정의하고, 각종 제어 기능을 관리하며, 전사적 범위에서 규제 준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